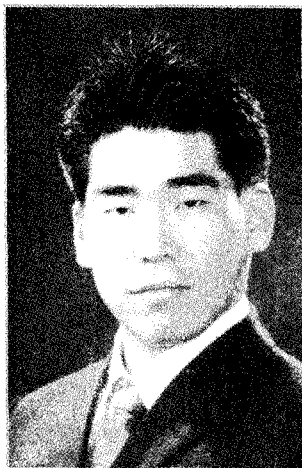


기업용 시장중심의 성장과 함께 A3복합기가 시장성장 주도 국내 프린팅 시장 동향 및 전망

장비 효율화와 복합기와 프린터의 적어진 가격 격차에 따라 전체 출력기기 시장에서 복합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9년 73%에서 2012년 8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A3 컬러 디지털 복합기의 성장폭이 매우 클 전망이다. 전년 대비 약 40% 늘어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A4 레이저 시장이 11% 성장하는 한편, A3 레이저 시장은 무려 21% 이상의 두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A4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 시장의 경우 금액기준 A4는 4.7%, A3는 7.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A3 시장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 글/삼성전자주 IT솔루션사업부
김한승 대리

1. 사무기기 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특징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선 사무기기 시장
프린팅 시장은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DC의 예측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프린팅 시장은 약 1,180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3%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세트 시장은 전년대비 6.6% 성장이 전망되고, 레이저 제품군이 2009년 대비 수량/금액 기준 모두 8%가량 성장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합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복합기 시장은 전년 대비 수량 기준 18%, 금액 기준 21% 성장하며 프린팅 단일기능 기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20 ppm급 이상의 중고속기의 시장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량대비 금액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소모품 시장은 A3 대형기기의 소모품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3.2%↑)하

는 반면, 잉크젯 소모품 수요가 2.8% 감소하여 전체 소모품 시장규모의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플러스 성장을 하며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지역은 2009년 대비 수량 기준 2.5%, 금액기준 4.4% 역성장하며 작년에 이어 컬러 레이저 복합기 군을 제외한 전 제품 군이 역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역성장세는 2012년에 가서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시장의 경우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의 영향으로 시장규모는 전년수준에서 수량 기준 2% 내외의 소폭 성장 혹은 정체될 전망이다. 반면 이외 동남아, 브릭스를 주축으로 한 성장지역의 경우 10%대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CIS 및 서남아 시장의 경우 수량기준으로 각 28.6%, 19.2%의 고속 성장을 하며 글로벌 시장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프린팅 시장 동향

빠른 시장 회복 기대

국내 프린팅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어려운 시기를 거쳐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 세트 기준 2010년 8천3백억 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11.6%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레이저 프린팅 제품의 경우, 올해 약 90만대 규모로 전년대비 약 17% 이상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A3 컬러 복합기 고속 성장

전체 출력기기 시장에서 복합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009년 복합기 비중 73%에서 2012년에는 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비 효율화 측면에서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복합기 한대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뿐 만 아니라, 복합기와 프린터의 가격 차이가 점차 좁혀짐에 따라 고객 수요가 점차 복합기로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업들이 지난 한 해

미뤄왔던 출력 장비 구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용 중고속기기 중심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3 컬러 디지털 복합기의 성장폭이 매우 클 전망이다. 전년 대비 약 40% 늘어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A4 레이저가 11% 성장하는 한편, A3 레이저 시장은 무려 21% 이상의 두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A4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 시장의 경우 금액기준 A4 레이저는 4.7%, A3는 7.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A3 시장이 전체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국의 프린팅 장비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기업용 시장 중심의 성장을 거듭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MPS 범위 확대 및 EDS 시장 확대

기업용 프린팅 시장 성장과 함께 출력관리서비스(MPS)도 본격적으로 보급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Managed Printing Service)는 프린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와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즉 프린팅 업체가 기업 문서 환경 전체를 모두 책임지는 토털 아웃소싱서비스다. 통합출력관리서비스는 프린팅 장비의 개별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기업 단위의 토털 프린팅 사업을 수주, 위탁 관리함으로써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볼륨을 확대하고,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는 토털 프린팅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증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력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광받으며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이 이어지며 MPS시장도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도입 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통합출력관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프린터 전문업체로부터 하드웨어와 구축 컨설팅, 소모품 공급, 유지보수 관리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장당(Page)으로 환산해 일정기간마다 나누어 지불함으로써 복잡한 관리 부담은 덜고 관련 비용은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하게 최신형 제품을 공급받아 프린팅 환경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잉크, 토너의 수명이 다 했을 경우 이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파악해 곧바로 교체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프린팅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 해는 출력 장비뿐 만 아니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관리해주고, 또 이를 실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EDS(Enterprise Document Service) 라는 토털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까지의 MPS는 종이문서에 대한 관리, 즉 종이, 토너, 장비 장애 관리가 주요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면, EDS는 문서의 전자화/DB화/문서 보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관심영역인 보다 확장된 개념의 서비스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문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력기기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SI 업체인 삼성 SDS와 업무 제휴를 맺고 문서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후지제록스는 IT 컨설팅 업체인 세중시스템과 EDS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 양해 각서(MOU)를 체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HP의 경우 2008년 인수 합병한 IT 솔루션 업체인 한국 EDS와 통합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3. 향후 시장 전망

클라우드 프린팅과 스마트폰 프린팅

지난 한 해,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 스마트폰이 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M-워커(모바일 근로자 · Mobile worker) 인구도 늘고 있다. 따라서 출력기기도 이러한 스마트폰 및 M워커의 출력 행태에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엡손과 HP, 렉스마크 등 프린팅 업체들은 스마트폰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림이나 메일 정도를 출력

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복잡한 문서나 오피스 문서도 출력 가능한 솔루션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에이전트 프린트' 라는 출력 솔루션을 '2010 CES' 에서 선보인 바 있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폰에서 열어본 문서 파일을 출력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기업 내에 구축된 네트워크 내에서 가까이 있는 프린터들을 무선으로 모두 검색하기 때문에 원하는 프린터기를 선택해 출력물을 받아볼 수도 있다. 또한 특정 브랜드의 프린터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출력기기를 지원하고,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출력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프린팅' 솔루션도 등장하여 모바일 근무환경에서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10 CES쇼에서 출력을 원하는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출력 가능한 '유비쿼터스 프린팅' 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선보인바 있으며,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힘쓰고 있다.

PC-less 프린팅과 어플리케이션 프린팅

프린터는 과거 PC와 케이블로 연결된 주변기기였다. 하지만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린터는 주변기기에서 중심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대부분의 프린터는 웹 연결성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기본 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PC를 거치지 않고도 프린터로 직접 웹에 접속,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현재의 스마트폰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원하는 출력 콘텐츠를 손쉽게 찍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HP의 경우 최근 웹 프린터 개념을 선보이며 USA투데이, 웨더뉴스, 구글 캘린더, CNN, 드림웍스 등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제휴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한 프린터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SDK와 API 등을 개방해 로컬 제작자 및 다양한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4.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시장 성과 및 전략

기업용 프린팅 시장에서 고속 성장

2010년 1분기 국내 프린터 시장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수량기준으로 모노 레이저 프린터(68.6%), 모노 레이저 복합기(66.7%), 컬러 레이저 프린터(73.0%), 컬러 레이저 복합기(89.6%) 등 A4 레이저 제품군 모두가 1위를 차지했을 뿐 만 아니라, 잉크젯, A3 복사기를 포함한 전체 프린터 시장에서 1위(31%)를 차지해 명실공히 국내 프린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프린터 기반 업체였던 삼성전자는 복사기 기반 출력기기 분야에서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복사기 4강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내 복사기 시장은 올 1분기 신도리코 27.8%, 캐논 27.5%, 제록스 19.8%, 삼성전자 18.9%로 4개 업체가 시장의 94% 이상을 차지하며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지난 2006년 5.6%에서 2008년 13%, 2009년 16%, 올 1분기 18.9%로 점유율을 늘려오며 3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가파른 성장은 A3 기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업용 복사기 시장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경제성을 장점으로 하는 A4 기반의 디지털 복사기 라인업인 '멀티익스프레스(MultiXpress)' 시리즈를 출시하여 기업 고객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중대규모 사무실을 위한 A3 기반 멀티익스프레스 C9350ND/9250ND 모델을 새롭게 선보임에 따라, 사무기기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굳혀질 전망이다. 한편, 세트뿐 만 아니라 통합출력관리서비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카운쓰루(CounThru™) 솔루션에 기반한 기업용 프린팅 아웃소싱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 조직 및 서비스 인프라를 무기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원터치 기능 앞세워 개인용 레이저 시장 공략

초소형 레이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개인용 레이저 제품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전자는 최근 초소형의 크기에 덧붙여 혁신적인 원터치 기능을 장착한 제품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국내 레이저 프린팅 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 원터치 기능은 사용자가 프린터 기능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능들을

버튼하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편의 기능이다.

모노 레이저 프린터 ML-1660/1665K 및 컬러 레이저 프린터 CLP-320/325K는 '원터치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장착, 사용자가 PC 조작 과정 없이도 보고있는 화면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 컬러 레이저 복합기 CLX-3185K는 '원터치 에코복사' 버튼이 있어 복잡한 드라이버 조작 없이도 여러 페이지를 흑백으로 한 장에 복사할 수 있어 용지와 토너 절약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늘어 가고 있는 무선 환경을 고려, '원터치 무선 연결(WPS)' 버튼을 장착한 무선 랜 기능 탑재 모델인 'CLP-325WK'와 'CLX-3185WK'도 함께 선보였다. 버튼 하나로 프로그램 설치나 복잡한 세팅 과정 없이 무선 설정이 가능해 기계에 익숙치 않은 주부나 학생들도 손쉽게 무선 세팅이 가능하다.

향후 전략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기업용 프린팅 시장 공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성능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새롭게 선보이는 기업용 A3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유지비용에 민감한 중대규모 기업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기업용 프린팅 솔루션 시장은 장비 교체 이슈와 맞물려 올 하반기 이후 본격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은 이에 맞춰 한층 강력해진 기업용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통합문서관리 솔루션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기업고객의 출력업무 효율화를 돕고 시장 내 삼성의 입지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 개발 솔루션 외에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통해 기업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빠르고 쉽게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개인용 분야에서는 디자인 차별화, 사용성 차별화를 통해 레이저 부문의 리더십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의 제품 소개는 물론, UI(User Interface)를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